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 현대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8년 4월 30일 월요일 (음 3월 15일) 제2039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함께합시다”... 남과 북, 금강산 그림 앞에서 손 잡다



27일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가운데 평화의 집 금강산 그림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손을 잡은 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남북 “올해 종전 선언... ‘비핵화 실현’ 공동 목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내 종전을 선언하고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기로 합의했다.

남북 정상은 기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향후 공교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남북 정상은 27일 오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4·27 판문점 선언)에 합의, 이를 발표했다.

남북 정상은 선언에 앞서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라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000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며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



“군사적 긴장 해소에 따라 단계적 군축... 평화협정으로 전환”
두 정상, 향후 회담 및 통화 정기와... 文, 올 가을 평양 방문

▶ 관련기사 2·3·12·16면

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라며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때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했다”며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데 따라 단계

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남북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측이 취하고 있는 조치들이 의의 있고 중대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자기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데 합의했으며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남북 정상은 향후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해 한반도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올 가을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다.

남북 정상은 평화협정 전환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무장지대(DMZ)를 실질적인 평

화지대로 만드는 한편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기로 했다.

남북 정상은 “5월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고 선언했다.

이와함께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우나기로 했다”며 “남과 북은 상호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 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군사적 문제 협의를 위해서는 향후 국방장관 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열기로 합의

했다. 다음달에는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민간교류와 협력 방안도 향후 강화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남북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 회담을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향후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에 설치하기로 했다.

남북 정상은 남북 적십자회담 개최와 이산가족·친척상봉 등 문제에 대한 협의 해결 원칙도 천명했다.

이어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했다”고 선언했다. /김진성 기자

5월 1일 근로자의 날 관계로 5월 2일자 신문 쉽니다.

전북개발공사는
 토지개발 등 수익사업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임대주택 등 공익목적 사업에 재투자하여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공익성과 수익성을 도모합니다.